

#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 청소년 자아탄력성, 그리고 스트레스 대처방식 간의 관계: 청소년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 Relationship between Parent Communication Style and Stress Coping Styles in Adolescence: The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y

경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이희선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임상심리사 선우현정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yungwon University

Professor : Heesun Lee

Gyeonggi Sunnam Child protection Agency

Clinical Counselor : Hyun-Jung Sunwoo

###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논의 및 결론

참고 문헌

### <Abstract>

The major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explore the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y between parent communication style and stress coping styles in adolescence. The subjects who participated in this study included 247 high school students from Gyeong-gi province. They completed questionnaires on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ego-resilience, and stress coping styles using the cognitive appraisal model by Lazarus & Folkman(1984). Data were analyzed by *t*-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It was found that parent-adolescence communication as well as ego-resilience had significant effects on stress coping styles. In particular, female teenagers showed evidence that ego-resilience had complete mediation over relationships between a parent's communication styles and their stress coping styles.

**주제어(Key Words)** : 부모-청소년간 의사소통 유형(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자아탄력성(ego-resiliency),  
스트레스 대처 방식(stress coping styles)

**Corresponding Author** : Heesun Lee,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yungwon University, San 65, Bokjeong-dong Sujeong-gu,  
Seongnam-si, Gyeonggi-do, Korea Tel: +82-31-750-5964 Fax: +82-31-753-8828 E-mail: hslee@kyungwon.ac.kr

\* 이 논문은 2011년 경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임

## I. 서론

인간발달에서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옮겨가는 과도기로서 어린이도, 어른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를 경험하고 이로 인한 불안정과 불균형으로 혼란을 겪는다. 이러한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인 급격한 변화 속에서 청소년이 겪는 스트레스는 지극히 피할 수 없는 경험으로 여겨져 왔다. 즉 발달적 과도기 속에서 경험하는 정체성의 혼란이 청소년에게 스트레스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으며(Erikson, 1969), 불명확한 미래에 대한 걱정 또한 높은 스트레스로 지각된다(Haid, et al., 2010). 청소년기 스트레스는 문제행동(Leadbeater, & Blatt, 1995; Mathijssen, Koot, & Verhuist, 1999)과 비행(Hoffmann & Cerbone, 1999; Hoffmann & Susan, 1997; Tolan, 1988), 학업중단(금명자, 2008; 김지혜, 안치민, 2006) 그리고 청소년 자살(Hebden, 1987; King, et al., 2001; Wilson, et al., 1995)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대부분의 청소년이 이와 같은 문제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우리를 주목하게 한다. 따라서 다양한 스트레스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 중에서 원만하게 적응하는 청소년들과 적응하지 못하고 문제행동을 보이는 청소년들간의 차이점을 발견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정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에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이 두 집단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노력해 왔다. 과거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스트레스 자극 자체가 개인의 적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 하에 연구를 실시해왔으나(Abramson, Seligman, & Teasdale, 1978; Laux & Vossel, 1982) 기대와 다르게 두 변인간의 실질적인 관련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게 되면서(Billings & Moos, 1981; Coyne & Gotlib, 1983) 학자들은 스트레스 자극 자체 보다는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Aneshendel & Stone, 1982; Billings & Moos, 1985; Cohen & Hoberman, 1983), 즉 개인특성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Cohen & Lazarus, 1983; Coyne, Aldwin, & Lazarus, 1981; Lazarus, 1998). 그 중에서도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개인특성에 초점을 둔 매개변인으로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활발한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적응간의 유의한 관계들이 밝혀졌고(Cohen & Lazarus, 1983; Coyne, Aldwin, & Lazarus, 1981; Seiffge-Krenke, Aunola, & Nurmi, 2009), 최근에는 스트레스 자극 자체보다는 개인마다 다른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건강과 삶의 질에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Overli, 2006; Susman, et al., 1999).

스트레스 대처 방식(coping)은 고통스럽게 인식된 자극에

대한 적극적이고 목적지향적인 반응 과정으로(Lazarus, 1993), 스트레스를 다루는 행동적, 정서적, 인지적 시도의 개인차라고 할 수 있다(Lazarus, 1998). 스트레스 대처 방식은 다양한 학자에 의해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고 있으나(Fredric, 1990; Moos & Billings, 1984; Pearlin & Schooler, 1987)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대처방식은 Lazarus와 Folkman(1984)의 분류유형이다. Lazarus와 Folkman(1984)은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고통으로 인한 문제를 다루거나 변경하는 유형과, 문제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조절하는 유형으로 나누었는데, 전자를 문제 중심적 대처(problem-focused coping), 후자를 정서 중심적 대처(emotion-focused coping)라고 하였다. 이 두 가지 유형을 바탕으로 김정희(1987)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보다 구체화하여 문제집중 대처, 정서중심대처, 소망적 사고대처, 사회적 지지 추구대처로 분류하였으며, 이후 문제집중 대처와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를 묶어 적극적 대처로, 정서중심 대처와 소망적 사고 대처를 묶어서 소극적 대처로 구분하기도 하였다(김정희, 이장호, 1985).

스트레스 대처 방식과 관련된 연구는 크게 개인 외적 요인과 개인 내적 요인들로 나뉘는데, 먼저 개인외적인 요인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주요 환경인 부모를 들 수 있다. 특히 부모-청소년간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성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서 긍정적인 의사소통 유형을 보일수록 청소년은 학교에서 높은 과업성취를 보였고(Masselam, Marcus, & Stunkard, 1990), 불안, 우울과 같은 문제행동이 적게 나타났으며(Hartos & Power, 2000), 또래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였다(Bryant & Elder, 2002; Guilamo-Ramos, Jaccard, Dittus, & Bouris, 2006; Videon, 2002). 구체적으로 스트레스 대처 방식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부모의 지지를 받고 갈등 없는 관계를 경험해온 청소년은 지각하는 스트레스가 적었으며(Holahan, Valentiner, & Moos, 1995), 부모가 온정적이고 지지적이라고 지각한 청소년은 문제중심적 대처를, 부모가 단호하고 통제적이라고 지각한 청소년은 정서 중심적인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Dusek & Danko, 1994). 그 외에도 포괄적인 관점에서, 결속력있고 조직적이며 존중적인 가족분위기에서 성장한 청소년은 문제상황에서 기능적인 대처를 하였고, 지지가 적고 강압적인(over-controlling) 가족분위기에서 성장한 청소년은 역기능적인 대처를 보였다(Shulman & Seiffge-Krenke, 1987; Zimmer-Gembeck & Locke, 2007). 국내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스트레스 대처 방식간의 관계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아동의 경우, 부모를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으로 지각할수록 적극적, 사회 지지적 대처행동을 많이 보이고, 통제적으로 지각할수록 소극적/회

피적 대처행동을 많이 보였다(김대권, 2004). 또, 부모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 유형을 보였던 아동은 해결방안강구, 지지추구 등의 대처행동을 더 많이 보였고, 부정적인 의사소통 유형을 보였던 아동은 보복, 앙갚음, 소망, 기원 등의 대처행동을 더 많이 보였으며(양현아, 박영애, 2004), 아버지와의 개방적 의사소통 유형이 적극적 대처행동과 사회지지 추구적 행동에 영향을 미쳤고, 어머니와의 개방적 의사소통 유형은 적극적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쳤다(임주희, 2003). 또, 청소년의 경우,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유형이 개방적일수록 적극적 대처가 높았고,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유형이 개방적일수록 소극적인 대처가 높았다(김여진, 2006; 손영미, 2009). 이상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 포괄적으로는 가정 분위기에서부터 구체적으로는 부모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 유형이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Frydenberg & Lewis, 2000; Mullis & Champman, 2000), 선행연구에서 문제중심적, 정서완화적 대처방식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개방적인 의사소통 유형에 영향을 받는 반면,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방식은 아버지의 개방적 의사소통 유형의 영향에만 유의하고 어머니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으며(손영미, 2009), 적극적 대처방식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개방형, 문제형 의사소통 유형에 영향을 받았으나, 소극적 대처방식의 경우 어머니의 문제형 의사소통 유형은 유의한 영향력이 발견되지 않는 등(김여진, 2006), 어머니와 아버지의 영향력 또한 다르게 나타나기에(Grotevant & Cooper, 1983) 성별에 따른 관계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국내 연구(김여진, 2006; 손영미, 2009; 임주희, 2003)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영향력만 살펴본 연구가 대부분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의 성별에 따른 부-남녀 청소년, 모-남녀 청소년 의사소통 유형과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한편, 개인내적인 요인으로 그 관련성이 자주 언급되어 온 것이 자아탄력성이다. 자아탄력성(ego-resiliency)이란 개인이 처한 상황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자아통제의 수준을 적절하게 변화시키는 자아의 동기조절능력과 인지적 능력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Block & Block, 1980), 일반적으로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긍정적인 정서를 보이며 자신감도 더 높아 심리적으로 잘 적응하는 반면, 자아탄력성이 낮은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경직되고 집요한 태도나 산만한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Block & Kremen, 1996). 아동, 청소년과 관련하여서도, 아동의 자아탄력성의 모든 하위요인은 긍정적인 스트레스 대처 방식인 근본적, 능동적 문제해결과 타인으로부터의 지지추구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유하영, 2011), 아동이 자아탄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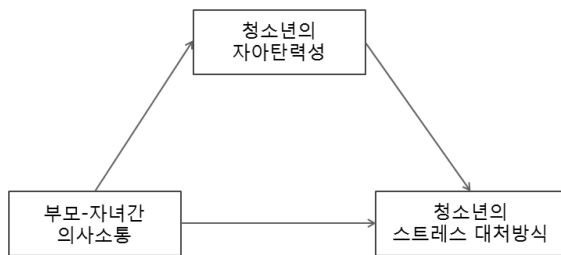
성이 높을수록 스트레스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사회지지추구적 대처를 많이 보였고 공격적 대처행동은 적게 보였다(김지영, 2008). 또, 자아탄력적인 청소년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다 효율적인 대처를 사용한다고 밝혀져 왔고(Compas, 1998; Davey, Eaker, & Walters, 2003), 구체적으로는 자아탄력적인 청소년은 정서중심대처나 소망적 사고대처 등의 소극적 대처보다는 문제중심 대처와 사회적 지지추구 등의 적극적 대처를 사용하였다(김미애, 박완주, 2008; 이은미, 2001; 이하나, 정현주, 이기학, 이학주, 2006; 장경문, 2003; Campbell-Sills, Cohan, & Stein, 2006; Yi, Smith, & Vitaliano, 2005).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정리한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선행변인으로 예측되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역시 서로 관련성이 보여진다. 국내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성장환경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장경문, 2003), 자율적이고 개방적이며 민주적인 심리적 성장환경이 청소년의 높은 자아탄력성과 연결되는 반면, 높은 전통교수, 지나친 성취강조, 물질지향적인 환경요인은 낮은 자아탄력성과 연관된다고 하였는데, 그 심리적 성장환경 중에 하나로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을 포함시켰다. 또, 어머니-청소년간 긍정적인 의사소통 유형은 청소년의 높은 자아탄력성과 연관이 있었고(이지미, 2010),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은 자아탄력성과 유의한 상관을 보여, 부모가 평가, 혼란, 비난, 회유 등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유형을 보일수록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은 낮게 나타났다(김혜수, 2005). 그 외에도 어머니의 돌봄 수준이 높고 과잉통제나 제한의 수준이 낮거나, 아버지의 돌봄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높았다는 연구결과(이은미, 200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중심적, 애정적, 합리적일수록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높았다는 연구결과(신정희, 2007), 어머니와 안정적인 애착이 아동의 높은 자아탄력성을 예측하고(Main, 1996),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이 청소년의 높은 자아탄력성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영화, 2008; Kirby & Fraser, 1997)에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이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 자아탄력성, 그리고 스트레스 대처 방식간의 관계를 모두 고려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데, 전체 변인들의 관계를 파악하여 각 변인들간 인과관계를 알아보는 것은 청소년의 적절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몇몇 선행연구를 찾아보면, 초등학교 4-6학년생을 대상으로 가족의 지지를 포함하는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아동의 자아탄력성

을 높여 아동의 건강하고 효율적인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증진시켜준다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하였고(유하영, 2011), 초등학교 5, 6학년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미치는 영향은 간접적인 것으로 나타나 자아탄력성이 매개역할을 한다고 하였다(김대권, 2004). 이러한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비록 연구대상이 초등학교생이라는 것과 선행변인을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이 아닌 전반적인 가족분위기 또는 양육의 질을 보았다는 차이점이 있으나, 유사한 변인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남녀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그리고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이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이와 동시에 각 변인들간 인과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차지하는 매개적 효과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로써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그리고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인과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의 적절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증진시키는 궁극적인 방법을 알아내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그림 1).

- 첫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은 남녀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둘째, 남녀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셋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은 남녀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넷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남녀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관계를 자아탄력성이 매개하는가?



〈그림 1〉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 남녀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및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모형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에 소재한 S고등학교와 D고등학교의 1-3학년 247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S고등학교(130명)와 D고등학교(117명) 학생이 동등한 대상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아버지 개방형 의사소통( $t = -1.67, p = .09$ ), 아버지 문제형 의사소통( $t = .76, p = .45$ ), 어머니 개방형 의사소통( $t = -.99, p = .32$ ), 어머니 문제형 의사소통( $t = .79, p = .43$ ), 자아탄력성( $t = 1.00, p = .32$ ), 소극적 대처( $t = -.49, p = .63$ ), 적극적 대처( $t = -1.30, p = .20$ )에서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동등한 집단으로 간주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고등학교 1-3학년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 시기는 자아정체감의 혼동기( Erickson, 1963), 자율적 자기통제 능력의 결여, 가치 체계에 대한 무조건적인 대응행동이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Causey, 1992), 특히 국내에서는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최고조에 이르러(박영신, 김의철, 김묘성, 2002; 성미숙, 2004) 적절한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증진이 요구되는 시기라는 점에 근거하였다. 연구 대상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면, 성별은 남학생이 104명(42.1%), 여학생이 143명(57.9%)이었으며, 연령은 19세가 86명(34.9%), 18세가 85명(34.4%), 17세가 76명(30.7%)으로 남녀와, 1, 2, 3 학년의 연령분포가 비슷한 수준이었다. 형제 관계는 외동이가 19명(7.9%), 2명 이상이 199명(81.2%), 3명 이상이 29명(10.9%)로 2명 이상이 가장 많았고, 가족구조는 핵가족이 211명(85.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부모의 연령은 모의 경우, 40-45세가 110명(44.6%), 46-50세가 84명(43.4%), 아버지의 경우, 40-45세가 42명(26.2%), 46-50세가 156명(63.2%)으로 부, 모 모두 4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부, 모 모두 대학교 졸업이 151명으로(61.1%) 가장 많았고, 부모의 직업은 모는 무직이 145명(58.7%), 부는 회사원이 121명(49.0)으로 가장 많았다.

###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질문지법에 의해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측정도구는 청소년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대한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구성되었다.

#### 1)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은 Olson과 Barnes(1982)의 PAC(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를 조은경(1993)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PAC는 청소년의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식 척도이며, 개방형 의사소통 유형 10문항, 문

(표 1) 연구대상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N = 247)

변인	N(%)	변인	N(%)
<b>청소년의 성별</b>		<b>연령</b>	
남학생	104(42.1)	17세	76(30.7)
여학생	143(57.9)	18세	85(34.4)
		19세	86(34.9)
<b>형제관계</b>		<b>가족구조</b>	
외동이	19(7.9)	핵가족	211(85.5)
2명이상	199(81.2)	대가족	25(9.3)
3명이상	29(10.9)	기타	11(5.2)
<b>어머니 연령</b>		<b>아버지 연령</b>	
40-45세	110(44.6)	40-45세	156(63.2)
46-50세	84(43.4)	46-50세	49(26.2)
50-55세	38(10.0)	50-55세	36(8.2)
56-60세	15(2.0)	56-60세	6(2.4)
<b>어머니 교육수준</b>		<b>아버지 교육수준</b>	
고등학교 중퇴이하	4(1.6)	고등학교 중퇴이하	2(0.8)
고등학교 중퇴 혹은 졸업	62(25.1)	고등학교 중퇴 혹은 졸업	26(10.5)
전문대 졸업 혹은 대학교 중퇴	11(4.5)	전문대 졸업 혹은 대학교 중퇴	5(2.0)
대학교 졸업	151(61.1)	대학교 졸업	151(61.1)
대학원 이상	17(6.9)	대학원 이상	63(25.5)
무응답	2(0.8)	무응답	0(0)
<b>어머니 직업</b>		<b>아버지 직업</b>	
무직	145(58.7)	무직	1(0.4)
환경미화원 등	1(0.4)	환경미화원 등	1(0.4)
생산직	13(5.3)	생산직	9(3.6)
자영업	15(6.1)	자영업	28(11.3)
사무직	10(4.0)	사무직	13(5.3)
회사원	37(15.0)	회사원	121(49.0)
전문직	12(4.9)	전문직	29(11.7)
기업주	1(0.4)	기업주	20(8.1)
기타(무응답 포함)	13(5.2)	기타(무응답 포함)	25(10.2)

제형 의사소통 유형 10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개방형 의사소통 유형과 문제형 의사소통 유형 모두,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 유형이 긍정적이고 개방적임을 의미하며, 문항의 예로는 개방형 의사소통 유형은 '아버지(어머니)는 늘 내 말을 귀담아 들어주신다', '아버지와 대화를 하면 만족스럽다' 등이, 문제형 의사소통 유형은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조심스럽고 어렵다', '나에게는 아버지와 의논할 수 없는 비밀이 많다' 등이 있다. Cronbach's  $\alpha$ 에 의해 산출된 신뢰도는 개방형 의사소통 유형은 아버지와 의사소통 유형과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유형이 모두 .91, 문제형 의사소통 유형은 아버지와 의사소통 유형이 .87,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유형이 .88이었다.

## 2) 자아탄력성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은 Block과 Kremen(1996)의 자아탄력성 척도(Ego-Resilience Scale)를 한현아(2007)가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청소년의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거의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Likert식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은 총 1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예로는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나도 상당히 빨리 괜찮아진다' 등이 있다. Cronbach's  $\alpha$ 에 의해 산출된 신뢰도는 .76이었다.

## 3) 스트레스 대처 방식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은 Lazarus와 Folkman(1984)의 대처방식척도를 김정희(1987)가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청소년의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전혀 해보지 않았다(1점)에서 항상 해보았다(5점)까지의 5점 Likert식 척도이며, 적극적 대처13문항, 소극적대처 14문항으로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대처방법을 많이 사용함을 의미하며, 문항의 예로는 적극적 대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일을 되든 안되든 한번 시도해 본다.', '전문적인 사람(선생님, 상담자, 의사 등)의 도움을 청한다' 등이, 소극적 대처는 '그 일을 잊기 위해 다른 일을 하거나 다른 활동을 한다.', '그 일이 사라지거나 끝나버리기를 바란다' 등이 있다. Cronbach's  $\alpha$ 에 의해 산출된 신뢰도는 적극적대처가 .77, 소극적대처가 .63이었다.

##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2010년 9월과 10월에 걸쳐 경기도에 소재한 S고등학교와 D고등학교에 방문하여 자율학습 중인 학급에 무선으로 총 30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였고 그 중 251부가 수거되었으며 불성실하게 응답한 4부의 질문지를 제외하고 총 247부의 질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rogram 15.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하였다. 연구문제의 분석에 앞서 각 변인에서의 성차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고, 각 변인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청소년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대처 방식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성별에 따른 차이

본 분석에 앞서 각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과 성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t*-

〈표 2〉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과 성별에 따른 차이 (N = 247)

	남		여		t
	M(SD)	M(SD)	M(SD)	M(SD)	
어머니-자녀간 의사소통 유형					
개방형 의사소통	3.55(.74)	3.82(.69)			-2.86**
문제형 의사소통	2.09(.70)	2.04(.68)			.62
아버지-자녀간 의사소통 유형					
개방형 의사소통	3.13(.73)	3.23(.81)			-.94
문제형 의사소통	2.27(.68)	2.25(.74)			.25
자아탄력성	2.76(.34)	2.78(.41)			-.32
스트레스 대처 방식					
적극적 대처	3.10(.56)	3.23(.50)			-1.83
소극적 대처	3.11(.48)	3.18(.44)			-1.15

\*\*p < .01

test를 실시한 결과 〈표 2〉와 같다. 남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하게 차이를 보인 변인은 어머니-자녀간 의사소통 유형 중 개방형 의사소통이었다( $t = -2.86, p < .01$ ). 즉,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어머니-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이 더 개방적이라고 지각하였다. 그 외 아버지-자녀간 의사소통 유형, 자아탄력성, 그리고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2. 다중공선성 검증

회귀분석에 앞서 회귀식의 기본과제인 다중공선성의 위반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VIF와 TOL을 확인한 결과, 적극적

대처가 종속변인일 경우, VIF가 10이하(아버지 개방형의사소통 = 3.17, 아버지 문제형 의사소통 = 3.03, 어머니 개방형 의사소통 = 2.58, 어머니 문제형 의사소통 = 2.49, 자아탄력성 = 1.09), TOL이 0.1 이상이었으며(아버지 개방형의사소통 = .32, 아버지 문제형 의사소통 = .33, 어머니 개방형의사소통 = .39, 어머니 문제형 의사소통 = .40, 자아탄력성 = .92) 이상, 소극적 대처가 종속변인일 경우, VIF가 10이하(아버지 개방형의사소통 = 3.15, 아버지 문제형 의사소통 = 3.02, 어머니 개방형의사소통 = 2.43, 어머니 문제형 의사소통 = 2.32, 자아탄력성 = 1.09), TOL이 0.1 이상(아버지 개방형의사소통 = .32, 아버지 문제형 의사소통 = .33, 어머니 개방형 의사소통 = .41, 어머니 문제형 의사소통 = .43, 자아탄력성 = .92)으로 나타나 회귀분석 실시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Berry & Feldman, 1990).

각각 10이하(1-3.0)와 0.1이상(.36-1)으로 나타나 회귀분석 실시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Berry & Feldman, 1990).

3.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이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이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표 3〉, 〈표 4〉의 남학생( $\beta = .48, p < .01/\beta = .49, p < .01$ ), 여학생( $\beta = .41, p < .01/\beta = .35, p < .05$ ) 모두의 경우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개방형 의

〈표 3〉 어머니의 의사소통 유형이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미치는 영향

(N = 104/143)

	적극적 대처						소극적 대처					
	남			여			남			여		
	B	SE	$\beta$	B	SE	$\beta$	B	SE	$\beta$	B	SE	$\beta$
어머니 개방형 의사소통	.36	.07	.48**	.30	.10	.41**	.10	.10	.32	.14	.09	.20
어머니 문제형 의사소통	.22	.08	.25	-.06	.10	-.09	.12	.12	.24	.04	.10	.06
R <sup>2</sup>	.13			.23			.06			.03		
F(df)	6.78**(2/102)			19.52*** (2/141)			2.81(3/101)			1.67(3/140)		

\*\*p < .01, \*\*\*p < .001

〈표 4〉 아버지의 의사소통 유형이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미치는 영향

(N = 104/143)

	적극적 대처						소극적 대처					
	남			여			남			여		
	B	SE	$\beta$	B	SE	$\beta$	B	SE	$\beta$	B	SE	$\beta$
아버지 개방형 의사소통	.37	.12	.49**	.22	.09	.35*	.29	.11	.42**	.10	.08	.18
아버지 문제형 의사소통	.21	.13	.26	.12	.10	.18	.20	.11	.28	.14	.09	.24
R <sup>2</sup>	.12			.05			.08			.02		
F(df)	5.49**(3/101)			3.58*(3/140)			3.70*(2/102)			1.22(2/141)		

\*p < .05, \*\*p < .01

〈표 5〉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미치는 영향

(N = 104/143)

	적극적 대처						소극적 대처					
	남			여			남			여		
	B	SE	β	B	SE	β	B	SE	β	B	SE	β
자아탄력성	.69	.16	.42***	.51	.09	.43***	.28	.16	.18	.18	.09	.17
R <sup>2</sup>	.18			.18			.03			.03		
F(df)	19.08***(3/101)			29.95***(2/141)			3.08(2/102)			3.79(3/140)		

\*\*\*p < .001

사소통이 청소년의 적극적 대처에 영향을 미쳐, 어머니, 아버지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보일수록 청소년의 적극적 대처가 높았다. 한편, 아버지의 개방형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소극적 대처에도 영향을 미쳐(β = .42, p < .01), 아버지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보일수록 청소년의 소극적 대처가 높게 나타났다.

4.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표 5〉의 결과, 남학생과(β = .42, p < .001) 여학생(β = .43, p < .001) 모두 자아탄력성이 적극적 대처에 영향을 미쳐,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적극적 대처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자아탄력성이 소극적 대처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5.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이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이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표 6〉, 〈표 7〉의 결과, 어머니 개방형 의사소통이 여학생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쳐 어머니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보일수록 여학생의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타났다(β = .32, p < .05). 반면 아버지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6〉 어머니의 의사소통 유형이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N = 104/143)

	자아탄력성					
	남			여		
	B	SE	β	B	SE	β
어머니 개방형 의사소통	.08	.06	.17	.19	.08	.32*
어머니 문제형 의사소통	.08	.07	.16	-.06	.08	-.09
R <sup>2</sup>	.02			.16		
F(df)	.91(2/102)			11.98***(3/140)		

\*p < .05, \*\*\*p < .001

〈표 7〉 아버지의 의사소통 유형이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N = 104/143)

	자아탄력성					
	남			여		
	B	SE	β	B	SE	β
아버지 개방형 의사소통	.14	.07	.29	.13	.07	.26
아버지 문제형 의사소통	.07	.08	.15	.02	.08	.03
R <sup>2</sup>	.04			.06		
F(df)	1.89(3/101)			3.68*(2/141)		

\*p < .05

6.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 자아탄력성,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간의 관계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해석하기에 앞서,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변인은 매개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야 한다. 둘째, 매개변인은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미치는 영향과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였을 때,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되거나 사라져야 한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살펴보았을 때, 본 연구에서 매개효과 검증하는 변인은 여학생 어머니의 의사소통 유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적극적 대처의 관계와, 여학생의 아버지의 의사소통 유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적극적 대처의 관계이다. 이에 여학생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적극적 대처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 분석을 〈표 8〉과 같이 실시하였다. 즉, 1단계에서 여학생의 적극적 대처를 종속변인으로 어머니의 의사소통 유형과 아버지의 의사소통 유형을 투입하였으며, 2단계에서 자아탄력성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1단계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청소년의 적극적 대처에 대한 어머니의 개방형 의사소통의 영향력이(β = .29, p < .05), 2단계에서 자아탄력성의 투입과 함께 그 영향력이 사라져(β = .29, p < .05 → ns) 어머니의 개방형 의사소통과 청

〈표 8〉 부모-녀(여)간 의사소통 유형, 자아탄력성,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간의 관계

(N = 143)

	적극적 대처					
	1단계			2단계		
	B	SE	β	B	SE	β
어머니 개방형 의사소통	.21	.10	.29*	.15	.10	.21
어머니 문제형 의사소통	-.14	.10	-.19	-.12	.10	-.16
아버지 개방형 의사소통	.13	.09	.22	.11	.08	.17
아버지 문제형 의사소통	.12	.10	.17	.10	.09	.14
자아탄력				.35	.10	.30***
$R^2$	.24			.32		
$\Delta R^2$				.08		
F(df)	9.58***(2/141)			11.01***(3/140)		

\* $p < .05$ , \*\*\* $p < .001$

소년의 적극적 대처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완전 매개하였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최종적으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의 역할을 알아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그 결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이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미치는 영향은, 남녀 청소년 모두에서 어머니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아버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적극적 대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남학생의 경우에서만 아버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소극적 대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적극적 대처의 관계는 남녀 청소년 모두에서 자아탄력성이 적극적 대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의 관계에서는 어머니의 개방적 의사소통만이 여학생의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종적으로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변인은 여학생의 어머니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그리고 적극적 대처의 관계였으며, 분석결과, 어머니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여학생의 적극적 대처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논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관계에서 부모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보일수록 남녀학생 모두 높은 적극적 대처를 보인다는 연구결과, 부모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보일수록 청소년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 지향적이고 사회 지지추구적인 적극적 대처를 보인다는 연구결과와(손영미, 2009), 부모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보일수록 사회지지 추구적인 대처행동을 많이 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임주희, 2003). 이는 부모와 만족스러운 대화를 하고, 사실과 감정을 속이지 않는 기능적인 상호작용을 나눌수록 청소년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포기과 좌절 없이 적극적인 대처를 보인다는 것을 설명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긍정적인 적응을 위해 부모는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보여야 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결과는 부모와 개방형 의사소통을 많이 보일수록 청소년은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대처를 많이 보이고, 부모와 문제형 의사소통을 많이 보일수록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대처를 적게 보였다는 연구결과나(김여진, 2006), 부모와 친밀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보이는 아동일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거나, 문제해결을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등의 적극적 대처를 보이고, 부모와 부정적이고 거부적인 의사소통을 보이는 아동일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 소망, 기원, 회피, 부정, 보복, 앙갚음 등의 소극적인 대처를 보인다고 한 선행연구(양현아, 박영애, 2004; Dusek & Danko, 1994)와는 부분적으로만 일치할 뿐 일부는 불일치하는 결과를 보인다. 즉, 부모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보일수록 적극적 대처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는 일치하나, 부모와 문제형 의사소통을 보일수록 적극적 대처를 적게 보였다는 연구결과와는 불일치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와 불일치는 연구대상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에 비하여, 부모의 문제형 의사소통의 영향이 크게 나타난 연구들은 보다 어린 대상을 연구에 포함하였다. 즉, 어린 시기일수록 행동의 변화가 빠르고(Keenan, Shaw, Delliquadri, Giovannelli, & Walsh, 1998), 부모의 역량이 자녀에게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Thompson, 2002) 아동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비하여 부모의 영향력이 보다 유의하게 나타났을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영향력은 전생애적이고 그 영향력이 누적되므로 본 연구결과에서 부모와의 문제형 의사소통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추후 연구를 통해 재검증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에서는 적극적 대처를 긍정적인 대처 방식으로, 소극적 대처를 부정적인 대처방식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보다는 각각의 대처방식이 상황에 따라 모두 유용하게 활용될 수도 있는지의 가능성을 살펴보는 연구



도 유용할 것이다.

또, 남학생의 경우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을 많이 보일수록 적극적 대처 뿐만 아니라 소극적 대처 역시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는 동일한 의사소통 유형이어도 부모의 성별과 자녀의 성별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김여진, 2006; 손영미, 2009; Grotevant & Cooper, 1983; Mullis & Champman, 2000; Frydenberg & Lewis, 2000). 이는 아버지와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소망, 기원 등의 소극적 대처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양현아, 박영애, 2004)와 아버지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보일수록 문제지향적이고 사회적 지지추구적인 적극적 대처와 함께 정서완화적인 소극적 대처도 함께 보였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바(손영미, 2009), 남학생의 경우 아버지의 개방적인 의사소통 유형은 적극적대처 뿐만 아니라 정서중심 대처, 소망적 사고 등을 포함하는 소극적 대처에도 영향을 미쳐 보다 광범위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즉, 남학생의 경우 동성의 부모인 아버지에게 보다 광범위한 영향을 받아, 아버지와 개방적이고 온정적인 의사소통을 경험하면서 자랐을 때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대처함을 예측할 수 있다. 아버지의 개방적이고 온정적인 관심은 남학생으로 하여금 스트레스 상황이 왔을 때 사회적 지지자를 찾거나 문제를 직접적으로 수정하려는 적극적 대처 방식 뿐만 아니라, 정서를 조절하거나 소망적인 사고를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자 하는 다양한 대처를 시도할 수 있도록 격려함을 암시한다. 이로서 남학생의 경우 부모와의 의사소통, 특히 동성의 부모인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부모자녀관계가 아버지와의 소통이 부족하고 남아에게 과묵하고 권위적인 성역할을 습득하도록 하는 유교적 문화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결과는 아버지 태도변화의 필요성이 크다고 시사할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관계에서, 남녀청소년 모두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높은 적극적 대처를 보인 것은 자아탄력성이 적극적 대처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소극적 대처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연구결과(김미애, 박완주, 2008; 이은미, 2001; 이하나 외, 2006; 장경문, 2003; Amilkan, Risinger, & Swickert, 1995)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로, 자아탄력적인 청소년은 효과적인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보여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다 융통적으로 적응함을 시사한다. 즉, 자아탄력적인 사람일수록 효과적인 정서조절기제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스트레스와 충돌할 경우 정서완화나 소망추구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보다, 사건의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내어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회복한다(Tugade & Fredricson, 2004). 따라

서 자아탄력적인 청소년은 같은 상황에서도 스트레스를 덜 지각하며 일단 어떤 상황이 스트레스로 지각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불안이나 우울을 경험하는 경향이 낮아 융통성 있게 반응하여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특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Block & Kremen, 1996).

셋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의 관계에서 여학생에게서만 어머니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는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유형과 자아탄력성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 어머니와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아탄력성도 높게 나타났다는 선행연구(이지미, 2010)와 일치하며, 어머니의 돌봄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타났다는 선행연구와도 맥락을 같이한다(조계연, 이은희, 2007). 즉, 어머니와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보인 청소년일수록 긴장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정서를 보이고(Tellegen, 1985), 유연하게 적응함을 의미한다(Block & Block, 1980). 또, 이는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유형에 비해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유형이 중요한 설명력을 갖는다는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결과로(정유진, 2000), 어머니가 아버지 보다 자녀와 대화를 더 자주하고 자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줌을 시사한다(Noller & Callan, 1990). 무엇보다 이러한 어머니의 영향력이 여학생에게서만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은 자녀가 동일한 성을 지닌 부모의 영향을 보다 많이 받는다는 것과 문화적인 영향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어머니와 대화하는 양이 많고 대화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Ding, 1993), 문화적인 면에서 남학생의 경우 자율성 및 독립성을 더 중요시하는 사회적 기대를 받아오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 가정 안에서의 역할에 충실해야하는 사회적 기대를 받아오면서(Giligan, 1982) 가정에서의 대화에 더 많이 참여하고 어머니의 영향에 더 많이 노출된다. 따라서 여학생은 모와의 의사소통에 보다 편안함을 느끼고 그 영향력 또한 남학생 보다 클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도 여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개방적인 의사소통 유형의 평균이 남학생의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고, *t*-검증결과 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어머니의 의사소통 유형을 더 개방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여학생의 적극적 대처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역할의 증명은 여학생의 적극적 대처능력이 어머니의 개방적인 의사소통보다 자아탄력성의 영향을 더 직접적으로 받음을 보여준다. 즉 어머니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은 여학생의 적극적 대처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자아탄력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평소 어머니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보이는 것도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유의한 영향이 있으나, 그 보다 이를 받아들이는 청소년이 자아탄력적인가 그렇지 않은가는 더욱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남학생의 경우 이와 같은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이 남학생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남학생의 경우에는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이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무의미 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으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일반적으로 자녀들은 동성의 부모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가부장적인 문화특성이 남아있으므로 인해 남학생과 아버지, 즉 남성들이 개방적인 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또한, 남학생은 문화적으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태도를 습득하도록 유도되어 더욱더 부모와 충분히 의논하고 감정이나 생각을 공유할 기회가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남아의 경우 부모와의 의사소통, 특히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고려할 때, 앞으로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건강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발달을 위하여 남학생으로 하여금 부모와 보다 온정적이고 개방적이며 기능적인 의사소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이 경기도 내에 있는 학생만으로 한정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다양한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의 긍정적 영향만이 나타나고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연구대상의 연령이 다름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으나, 본 연구와 동일한 연구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에서 지속적으로 비일관적인 연구결과가 발표된다는 점에서 연구도구의 문항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자아탄력성'은 하위영역이 없이 하나의 변인으로 보았기 때문에 자아탄력성의 어떠한 영역이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연구계획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상당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유용한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발달시키기 위한 선행변인을 연구하였다는 점, 또 그 방법에 있어서도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외적요인과 내적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유전과 환경의 역동적인 상호관계를 고려한 연구라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겠다. 특히 남녀 청소년이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고 어머니, 아버지에 따른 영향력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부모와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결과를 분석하였

다는 점에서 더욱 학문적인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는 청소년기 자녀가 있는 부모들에게 자녀의 자아탄력성을 증진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에 따른 영향력을 강조하여 보다 효율적인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양육행동을 격려하는 프로그램 등의 제작에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을 기대해본다.

## ■ 참고문헌

- 김대권(2004).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 및 스트레스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예, 박완주(2008). 중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비행성향. **아동간호학회지**, 14(4), 415-422.
- 김여진(2006).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학교적응간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희(1984).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세트 및 대처행동의 우울에 대한 작용.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희, 이장호(1985).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구성요인 및 우울과의 관계**. 서울: 고려대학교 행동과학연구소.
- 김지영(2008). 초등학생이 지각한 자아탄력성, 주관적 안녕감과 스트레스 지각수준 및 대처양식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수(2005).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완벽주의 및 자아탄력성간의 관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신, 김의철, 김보성(2002). IMF 시대 이후 초, 중, 고, 대학생과 부모의 스트레스 경험과 대처양식 및 사회적 지원: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2), 105-135.
- 성미숙(2004).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와 자아개념 및 비행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영미(2009).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과 지각된 정서적 유능성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 간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정희(2007).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현아, 박영애(2004).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방식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와의 관

- 계. **한국생활과학회지**, 13(6), 847-860.
- 유하영(2011).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및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화(2008). 청소년의 성격특성 및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미(2001). 부모-자녀 유대관계와 아동의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미(2010). 청소년이 지각한 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하나, 정현주, 이기학, 이학주(2006). 대학생의 자아탄력성, 행복감과 스트레스 지각 및 대처와의 관계. **상담학연구**, 7(3), 701-713.
- 임주희(2003). 부모관련 변수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에 미치는 영향.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경문(2003).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심리적 성장환경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0(4), 143-161.
- 정유진(2000). 청소년 학교생활 적응의 관련 변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개연, 이은희(2007). 초기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부모의 양육행동, 가족건강성과 문제행동간의 관계에서의 매개역할. **한국청소년연구**, 18(1), 79-106.
- 조은경(1993). 부모-청소년자녀간의 대인거리, 심리적 거리, 의사소통이 가족의 응집성이 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현아(2007). 가정의 위험요인,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및 또래관계의 질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bramson, L. Y., Seligman, M. E. P., & Teasdale, J. D.(1978). Learned helplessness in humans: Critique and reformul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7, 49-79.
- Amikan, J. H., Risinger R. T., & Swickert, R. J.(1995). Extraversion: A hidden personality factor in coping? *Journal of personality*, 63, 189-212.
- Aneshensel, C. S., & Stone, J. D.(1982). Stress and depression: A test of the buffering model of social support.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9, 1392-1396.
-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illings, A. G., & Moos, R. H.(1981). The role of coping responses and social resources in attenuating the stress of life event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4, 139-157.
- Billings, A. G., & Moos, R. H.(1985). Life stressors and social resources affect posttreatment outcomes among depressed patien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4, 140-153.
- Block, J.(2002). *Personality as an affect-processing system*. Mahwah, NJ: Erlbaum.
- Block, J. H., & Block, J.(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 (Ed.). *Development of cognition, affect, and social relations: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Vol. 13, 39-101). Hillsdale, NJ: Erlbaum.
- Block, J., & Kremen, A. M.(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 Bryant, C. M., & Elder, G. H.(2002). Parental behavior and the quality of adolescent friendship: A social-contextual perspectiv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 676-689.
- Campbell-Sills, L., Cohan, S. L., & Stein, M. B.(2006). Relationship of resilience to personality, coping, and psychiatric symptoms in young adult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4, 585-599.
- Causey, D. L., & Dibow, E. F.(1992). Development of a self-report coping measure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Development*, 21, 47-59.
- Chung, S. S., Lamb, M. E., & Hawng, C. P.(2006). Personality development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A longitudinal study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Swede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0(4), 338-343.
- Cohen, F., & Lazarus, R. S.(1983). Coping and adaptation in health and illness. In D. Mechance(Ed), *Handbook of health, health care, and the health Professions*(pp. 608-635). New York: Basic Books Inc.

- Cohen, S., & Hoberman, H. M.(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1.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99-125.
- Coyne, C., Aldwin, C., & Lazarus, R. S.(1981). Depression and coping in stressful episod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0*, 439-447.
- Davey, M., Eaker, D. G., & Walters, L. H.(2003). Resilience processes in adolescents: Personality profiles, self-Worth, and coping.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8*, 347-362.
- Ding, S.(1993). Parent-adolescent relations: A longitudinal study of change in conflict. Paper presented at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New Orleans, Louisiana March, 1993.
- Dusek, J. B., & Danko, M.(1994). Adolescent coping styles and perceptions of parental child rearing.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9*(4), 412-426.
- Erikson, E.(1969).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Inc.
- Freferic, W., & Hfeld, J. R.(1990). Coping style of Chicago adults, effectiveness. *Arch Gen Psychiatry, 37*.
- Frydenberg, E., & Lewis, R.(2000). Teaching coping to adolescents: When and to whom?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7*(3), 727-745.
- Grotevant, H. D., & Cooper, C. R.(1985). Patterns of interaction in family relationships and the development of identity exploration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6*, 415-428.
- Guilamo-Ramos, V., Jaccard, J., Dittus, P., & Bouris, A. M.(2006). Parental expertise, trustworthiness, and accessibility: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adolescent risk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8*(5), 1229-1246.
- Haid, M., Seiffge-Krenke, I., Molinar, R., Ciairano, S., Guney, K. N., & Cok. F.(2010). Identity and future concerns among adolescents from Italy, Turkey and German: intra-and between-cultural comparisons. *Journal of Youth Studies, 13*(3), 369-389.
- Hartos, J. I., & Power, T. G.(2000). Association between mother and adolescent reports for assessing relations between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4), 441-450.
- Hendin, H.(1987). Youth suicide: A psychosocial perspective.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17*, 151-165.
- Hoffnamm, J. P., & Cerbone, F. G.(1999). Stressful life events and delinquency escalation in early adolescence. *Criminology, 37*(2), 343-374.
- Hoffnamm, J. P., & Susan, S.(1997). The conditional effects of stress on delinquency and drug use: A strain theory assessment of sex difference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4*(1), 46-78.
- Holahan, C. J., Valentiner, D. P., & Moos, R. H.(1995). Parental support, coping strategies,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An integrative model with late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4*(6), 633-648.
- Holmes, T. H., & Rahe, R. H.(1967). "The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11*, 213-18.
- Jones, G. R., & George, J. M.(1998). The experience and evolution of trust: Implications for cooperation and teamwork.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2*(3), 531-546.
- Keenan, K., Shaw, D., Delliquadri, E., Giovannelli, J., & Walsh, B.(1998). Evidence for the continuity of early problem behaviors: Application of a developmental model.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6*(6), 441-454.
- King, R. A., Schwab-Stone, M., Flisher, A. J., Med, M., Greenwald, S., Rachel, M. A., et al.(2001). Psychosocial and risk behavior correlates of youth suicide attempts and suicidal ide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40*(7), 837-846.
- Kirby, L. D., & Smokowski, P. R.(1997). Risk and resilience in childhood: An ecological perspective. *Journal of Social Issues, 54*(2), 425-446.
- Lapane, K. L., & Hughes, C. M.(2006). Job satisfaction and stress among pharmacists in the long-term care sector. *The Consultant Pharmacist, 21*(4), 287-292.

- Laux, L., & Vossel, G.(1982). Paradigms in stress research: laboratory versus field and traits versus process. In L. Goldberger & S. Breznitz(Eds.) *Handbook of stress: Theoretical and clinical aspects*(pp. 203-211). New York: The Free Press.
- Lazarus, R. S.(1993). From psychological stress to the emotions a history of changing outlook.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4*, 1-21.
- Lazarus, R. S.(1998). *Fifty years of the research and theory of R. S. Lazarus*. Marjia, NJ: Erlbaum.
- Lazarus, R. S., & Folkman, S.(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lish Co.
- Leadbeater, B. J., & Blatt, S. J.(1995). Gender-linked vulnerabilities to depressive symptoms, stress, and problem behaviors in adolescent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5*(1), 1 - 29.
- Main, M.(1996). Introduction to special section on attachment and psychopathology: 2. overview of the field of attach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ist, 56*(3), 237-243.
- Masselam, V. S., Marcus, R. F., & Stunkard, C. L.(1990).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functioning, and school performance. *Adolescence, 25*, 725-737.
- Mathijssen, J. J. P., Koot, H. M., & Verhulst, F. C.(1999). Predicting change in problem behavior from child and family characteristics and stress in referred children and adolescent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1*(2), 305-320.
- Moos, R. H., & Billings, A. G.(1984). Coping stress and social resources among adults with unipolar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46*(4), 877-891.
- Mullis, R., & Champman, P.(2000). Age, gender, and self-esteem differences in adolescent coping style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0*(4), 539-541.
- Noller, P., & Callan, V. J.(1990). Adolescent's perception of nature of their communication with par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t, 19*(4), 349-363.
- Olson, D. H., & Barnes, H.(199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cales. In D. H. Olson, H. I. McCubbin, H. Barnes, A. Larsen, M. Muxen, M. Wilson(Eds.). *Family Inventories*. St. Paul, MN: University of Minnesota. Family Social Science.
- Overli, O., Sorensen, C., Pulman, K., Pottinger, G. T., Korzan, W., Summers, E. H., et al(2006). Evolutionary background for stress-coping styles: Relationships between physiological, behavioral, and cognitive traits in non-mammalian vertebrates. *Neurosciences and Biobehavioral Reviews, 31*, 396-412.
- Pearlin, L. I., & Schooler, C.(1987). The structure of coping. *Journal of Healthy Social Behavior, 19*, 2-21.
- Peggy A.(1995). Stress, coping, and social support processes: Where are we? What nex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5*, Extra Issue: Forty years of medical sociology: The state of the art and directions for the future, 53-79.
- Seiffge-Krenke, I., Aunola, K., & Nurmi, J. E.(2009). Changes in stress perception and coping during adolescence: The role of situational and personal factors. *Child development, 80*, 259-279.
- Shulman, S., & Seiffge-Krenke, I.(1987). Adolescent coping style as a function of perceived family climate.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2*(4), 367-381.
- Susman, E. J., Schmeelk, K. H., Worrall, B. K., Granger, D. A., Ponirakis, A., & Chrousos, G. P.(1999). Corticotropin-releasing hormone and cortisol: Longitudinal associations with dep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 in pregnant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dolescence Psychiatry, 38*, 460-467.
- Tellegen, A.(1985). Structures of mood personality and their relevance to assessing anxiety with an emphasis on self-report. In A. H. Tuma & J. D. Maser(Eds.), *Anxiety and anxiety disorders*, 681-706. Hillsdale, NJ: Erlbaum.
- Thompson, G. E.(2002). Corporal punishment by parents and associated child behaviors and experiences: A meta-analytic and theoretical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28*(4), 539-579.
- Tolan, P.(1988). Socioeconomic, family, and social stress correlates of adolescent antisocial and delinquent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6*(3), 317-331.

- Tugade, M. M., & Fredricson, B. L.(2004). Resilient individuals use positive emotion to bounce back from negative emotional experi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6, 320-333.
- Videon, T. M.(2002). The effects of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and parental separation on adolescent well-being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8(5), 1229-1246.
- Wilson, K. G., Stelzer, J., Bergman, J. N., Kral, M. J., Inayatullah, M., & Elliot, C. A.(1995). Problem solving, stress, and coping in adolescent suicide attempt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5, 241-252.
- Yi, J. P., Smith, R. E., & Vitaliano, P. P.(2005). Stress-resilience, illness, and coping: A person-focused investigation of young women athlete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28, 3, 257-265.
- Zimmer-Gembeck, M. J., & Locke, E. M.(2007). The socialization of adolescent coping behaviors: Relationships with families and teachers. *Journal of Adolescence*, 30, 1-16.

---

접 수 일 : 2011년 5월 9일

심사시작일 : 2011년 5월 11일

게재확정일 : 2011년 7월 7일